

나당전쟁기 고구려 백수성의 위치에 대하여

이상훈*

-
- I. 문제의 제기
 - II. 석문의 위치와 봉산의 지형
 - III. 서흥강과 봉산의 고성
 - IV. 당군의 남하와 석문 전투
 - V. 맺음말
-

【국문초록】

672년에 발생한 石門 전투는 나당전쟁 전반부의 최대 변곡점이었다. 이러한 석문 전투 발생 직전에 신라군과 고구려부흥군이 연합하여 당군과 싸운 전투가 바로 白水城 전투이다. 하지만 석문과 달리 백수성은 그 위치가 명확하지 않다. 백수성의 위치는 크게 재령강 유역과 예성강 유역으로 보는 학설이 제시되어 있다. 서흥강의 발원지가 泉谷이라는 점, 서흥강의 조선시대 명칭이 龍泉이라는 점, 서흥강 일대에 샘이나 우물이 집중 분포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서흥강의 원래 이름은 泉水 혹은 泉江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료들에 보이는 백수성·白水山·泉山 등은 모두 서흥강 일대를 이르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석문 전투가 발생한 곳이 운마산 아래쪽이라는 점, 당군의 남하 목표가 재령 일대로 예상되는 점, 백수성·백수산·천산 등의 용어가 서흥강에서 유래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백수성은 봉산 지역에 위치했을 가능성이 크다. 봉산의 古城으로 鶴鷓城과 古唐城이 확인되는데, 그 가운데 서흥강의 河中島에 위치한 고당성이 백수성으로 추정된다.

주제어 : 나당전쟁, 백수성, 석문, 신라, 고구려

*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교수

I. 문제의 제기

660년 나당연합군의 공격으로 백제가 멸망하였고, 668년 고구려마저 멸망하였다. 이후 신라와 당은 한반도의 주도권을 두고 대립하다가 결국 전쟁으로 치달았다.¹⁾ 나당전쟁의 결과 신라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삼국통일을 이루었고, 당은 수십 년간 지속했던 고구려·백제·신라에 대한 공세를 중단하게 되었다.

나당전쟁의 대표적인 전투는 오골성 전투, 석문 전투, 매소성 전투, 기벌포 전투이다. 670년에 발생한 오골성 전투는 나당전쟁의 본격적인 개전을 알리는 전투였으며, 672년에 발생한 석문 전투는 신라군과 당군이 대규모 회전을 벌인 전투였다. 그리고 675년에 발생한 매소성 전투는 나당전쟁의 분수령이 된 대규모 육상전투였으며, 676년에 발생한 기벌포 전투는 나당전쟁의 종결을 알리는 마지막 해상전투였다.

이 가운데 672년 石門 전투는 신라군이 당군에게 크게 패배함으로써 전략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²⁾ 또한 나당전쟁 개전 이래 신라군과 연합작전을 수행하던 고구려부흥군의 활동이 소멸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듯 석문 전투는 나당전쟁 전반부의 최대 변곡점이라 할 수 있다. 석문의 위치는 대체로 황해도 서흥으로 합의되어 있지만, 석문 전투 직전에 발생한 白水城의 위치에 대해서는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다.

백수성 전투와 석문 전투를 전하는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A. 8월에 [당군이] 韓始城과 馬邑城을 공격하여 이겼다. 군사를 전진시켜 白水城에서 500보 쯤 되는 곳에 軍營을 만들었다. 우리 군사와 고구려 군사가 [당군과] 맞서 싸워 수천 명의 목을 베었다. 高侃 등이 물러나자 추격하여 石門에 이르러 싸웠는데, 우리 군사가 패하여 大阿滄 曉川, 沙滄 義文, 山世, 阿滄 能申, 豆善, 一吉滄 安那舍, 良臣 등이 죽임을 당하였다.³⁾

672년 고간의 東州道行軍과 이근행의 燕山道行軍이 한반도로 남하해 평양 일대에 주둔하였다. 당군은 8월에 평양 인근의 韓始城과 馬邑城을 점령하고,⁴⁾ 다시 남하해 백수성 500보 거리에 진영을 편성하였다. 이때 신라군과 고구려부흥군이 연합해 당군을 공격하여 크게 승리하였다. 당군이 후퇴하자 신라군은 石門까지 추격에 나섰다. 하지만 신라군은 석문에서 주요 장수 7명이 전사할 정도로 당군에게 크게 패배하였다. 이에 신라는 당군에 대한 전략을

1) 나당전쟁과 관련된 주요 연구성과 정리는 권창혁, 2023 참조.

2) 서영교, 2002, 64-69쪽 ; 이상훈, 2012, 111-114쪽 ; 권창혁, 2019, 308-309쪽 ; 김병희, 2021, 90-98쪽.

3)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2년, “八月, 攻韓始城·馬邑城, 克之. 進兵距白水城五百許步, 作營. 我兵與高句麗兵逆戰, 斬首數千級. 高保等退, 追至石門戰之, 我兵敗績, 大阿滄曉川·沙滄義文·山世·阿滄能申·豆善·一吉滄安那舍·良臣等死之.”

4) 한시성은 보통강 수로와 대동강 수로가 합수하는 지점에 위치한 赤頭山城으로 비정되며(이상훈, 2022, 253쪽), 마읍성은 평양성에서 60리 떨어져 있고 대동강 수로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棲鶴山으로 비정된다(이상훈, 2017, 313쪽).

변경하기에 이른다.⁵⁾

- B-① 고간은 東州道行軍總管·左監門大將軍이 되었다. 함형 3년에 고구려의 남은 무리와 白水山에서 싸워 그들을 크게 깨뜨렸다.⁶⁾
- ② 고간이 안동도호부를 遼東州로 옮기고, 안시성에서 [고구려] 반란병을 깨뜨렸다. 또 泉山에서 그들을 패배시켰으며, 신라의 지원병 2천명을 사로잡았다.⁷⁾
- ③ 이해 겨울에 좌감문대장군 고간이 신라의 무리를 橫水에서 크게 깨뜨렸다.⁸⁾
- ④ 12월에 고간이 고구려의 남은 무리와 백수산에서 싸워 그들을 깨뜨렸다. 신라는 군사를 보내 고구려를 구하려 했지만, 고간이 공격해 그들을 깨뜨렸다.⁹⁾

중국측 기록에도 석문 전투와 관련된 내용이 전하고 있다. B-①②③④를 종합해 보면 당의 장수 고간이 동주도행군총관·좌감문대장군에 임명되어, 672년에 고구려부흥군과 신라군을 깨뜨렸다는 내용이다. 『삼국사기』 기록과 비교해 보면, 시기와 전투장소에서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삼국사기』에는 672년 8월 백수성이라고 되어 있는 한편, 중국측 기록에서는 672년 12월 백수산·천산·황수 등이라고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백수성, 백수산, 천산 등은 모두 동일한 지명으로 파악하고 있다.¹⁰⁾ 따라서 672년 8월부터 시작된 백수성·백수산 전투가 12월까지 진행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672년 8월 신라군과 고구려부흥군이 연합해 백수성에서 당군을 깨뜨렸고, 신라군이 중심이 되어 당군을 추격하다가 석문에서 크게 패배하였다. 이후 12월까지 백수성·백수산 일대에서 고구려부흥군의 저항은 지속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신라군이 다시 고구려부흥군 지원에 나섰다가 패배하였다.

[표 1] 학자별 백수성 비정

연도	학자	위치	비고
1930	池內宏	재령강 유역	재령 동북방
1966	김기웅	황해도 배천	배천산성
1977	이병도	예성강 하류	
1989	민덕식	황해도 배천	배천산성
1999	서인한	황해도 배천	배천산성

5) 신라는 그간의 공세적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신라 전역에 새롭게 성을 축조하거나 기존의 성을 증축하여 전국적인 방어선을 구축하였다(이상훈, 2016, 83쪽).

6) 『册府元龜』 권358, 將帥部19, 立功11, “高侃, 爲東州道行軍總管·左監門大將軍. 咸亨三年, 與高麗餘衆, 戰于白水山, 大破之.”

7) 『新唐書』 권220, 東夷列傳 高麗, “侃從都護府治遼東州, 破叛兵於安市, 又敗之泉山, 俘新羅援兵二千.”

8) 『舊唐書』 권5, 高宗下, 咸亨三年, “是冬, 左監門大將軍高侃大敗新羅之衆於橫水.”

9) 『資治通鑑』 권202, 唐紀18, 高宗 咸亨 3年, “十二月, 高侃與高麗餘衆戰于白水山, 破之. 新羅遣兵救高麗, 侃擊破之.”

10) 池內宏, 1930, 76~77쪽 ; 민덕식, 1989, 163쪽.

2006	서영교	재령강 유역	
2009	노태돈	황해도 재령	
2012	이상훈	황해도 재령	
2015	최재도	재령강 주변	봉산 고당성 가능성 제시
2016	전덕재	경기도 파주	오두산성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宏]는 황수를 재령강으로 보고 백수성(백수산)을 재령강 유역으로 비정하였고,¹¹⁾ 북한학자 김기웅은 白水와 유사한 예성강 유역의 白川으로 이해하였다.¹²⁾ 이후 이병도·민덕식·서인한 등이 배천설에 동조하면서 예성강 유역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를 이루었다.¹³⁾ 2000년대 들어서면서 석문(서흥)과 배천의 거리 문제, 당군의 이동경로 문제 등이 제기되며 다시 재령강 유역설이 확산되고 있다.¹⁴⁾ 이외에 泉城으로 비정되는 경기도 파주의 烏頭山城을 주목하는 견해도 제시되어 있다.¹⁵⁾

백수성 전투는 평양에 주둔하던 당군이 한시성과 마읍성을 점령하고 남하하여 고구려부흥군과 신라군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투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백수성을 배천으로 보기는 어렵다. 당군이 대동강 일대의 한시성·마읍성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갑자기 예성강 일대의 배천으로 전장을 옮겼다가 다시 재령강 일대의 석문(서흥)에서 전투를 벌인다는 것은 시간상·거리상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¹⁶⁾

당시 고구려부흥군의 거점은 황해도 재령 일대로 추정된다.¹⁷⁾ 재령 남쪽의 長壽山城 일대에 고구려 시기 도시유적이 확인되었는데, 평양성·국내성과 함께 3경을 이루었던 漢城 別都로 비정된다.¹⁸⁾ 한성 별도는 많은 인구가 집중하여 중부지역으로부터 운송한 각종 물자의 관리·비축·소비하면서 복합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된다.¹⁹⁾ 따라서 백수성의 위치는 평양과 재령 사이에 위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11) 池内宏, 1930, 78쪽.

12) 김기웅은 배천의 雉巖山에 위치한 치악산성을 백수성으로 보고 있는데, 치악산성은 배천산성으로 불린다(김기웅, 1966, 24~27쪽).

13) 이병도, 1977, 118쪽 ; 민덕식, 1989, 163쪽 ; 서인한, 1999, 130쪽.

14) 서영교, 2006, 230쪽 ; 노태돈, 2009, 255쪽 ; 이상훈, 2012, 112쪽 ; 최재도, 2015, 155~158쪽.

15) 전덕재, 2016, 109~110쪽.

16) 최재도, 2015, 155쪽. 이와 관련하여 황해도 봉산의 古唐城은 재령강과 석문의 중간에 위치하기에 백수성 전투와 관여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평양에 이은 당군의 두 번째 거점이었거나 백수성일 가능성도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최재도, 2015, 157~158쪽).

17) 漢城은 고구려 3경의 하나였을 만큼 지방의 중요한 거점이었으며, 고연무가 이끄는 고구려부흥군의 거점 조건으로 충분하다(이정빈, 2009, 145쪽). 조선시대 재령군의 본래 소재지는 新院 일대였는데, 역병이 자주 일어나 현 재령읍으로 소재지를 옮겼다고 전한다(여호규, 2020, 264쪽). 신원은 원래 재령의 남쪽에 위치한 하나의 면이었는데, 1952년 북한의 행정구역 재편과정에서 황해남도 신원군으로 되었다. 따라서 신원은 넓게 보아 재령 일대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18) 안병찬, 1990, 10~11쪽.

19) 여호규, 2020, 267쪽.

II. 석문의 위치와 봉산의 지형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은 백수성 전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다.

C. 당군이 말갈과 함께 石門의 들판에 진영을 설치하자, 왕이 장군 義福과 春長 등을 파견해 그들을 막게 하였고, [신라군은] 帶方の 들판에 진영을 설치하였다.²⁰⁾

신라군은 백수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 당군을 추격하다가 석문 전투에서 도리어 크게 패배하였다. 따라서 석문과 백수성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했음이 분명하다. 당시 당군은 ‘石門의 들판’에 주둔하였고, 신라군은 ‘帶方の 들판’에 주둔하였다. 백수성의 위치가 미상인 상태에서 이를 비정하기 위한 기준점은 석문이 된다. 석문은 대체로 황해도 서흥의 石門寺가 위치한 雲磨山 일대로 비정된다.²¹⁾ 다만 ‘석문’이라는 동일 명칭 외에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그림 1] 운마산과 석문사의 위치



[그림 1]의 왼쪽 지도는 조선 후기 「廣輿圖」 서흥의 일부분이며,²²⁾ 오른쪽 지도는 조선 후기 「海西地圖」 서흥의 일부분이다.²³⁾ 운마산 위쪽에 자비령으로 통하는 교통로가 있으며, 아래쪽에는 서흥강이 동서로 흘러간다. 운마산 일대는 위쪽 자비령, 동쪽 서흥, 서쪽 봉산을 이

20) 『삼국사기』 권43, 열전3 김유신(하) 부록 원술, “唐軍與靺鞨，營於石門之野，王遣將軍義福・春長等禦之，營於帶方之野.”

21) 이병도, 앞의 책, 119쪽 ; 이기동, 1987, 8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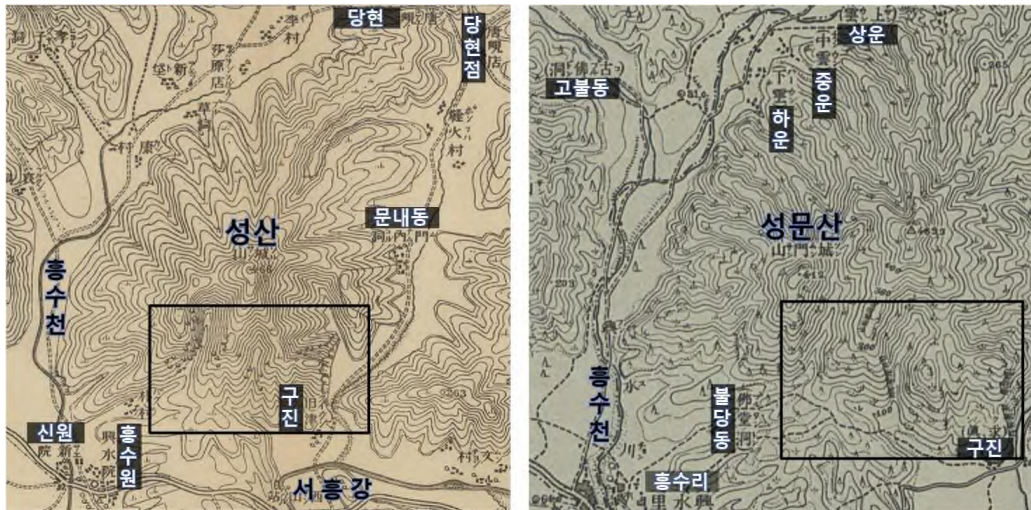
2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검색서비스(<https://kyudb.snu.ac.kr/main.do?mid=GZD>).

23)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검색서비스(<https://kyudb.snu.ac.kr/main.do?mid=GZD>).

여주는 교통의 요지라고 할 수 있다.

서흥의 서쪽 50리에 위치한 운마산²⁴⁾ 아래에 석문사가 그려져 있다. 오른쪽 지도를 보면, 석문사의 건물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채였던 점에서 상당한 규모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석문사는 운마산 일대를 대표하는 사찰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림 2] 운마산 일대의 지형



[그림 2]의 왼쪽 지도는 1895년 일본 臨時測度部가 측도한 「1:50,000」 지도의 일부분이며,²⁵⁾ 오른쪽 지도는 1918년 육지측량부가 측도한 「1:50,000」 지도의 일부분이다.²⁶⁾ 근대 지도를 참조해 보면, 운마산은 해발 489m로 城山 혹은 城門山으로 불리었음을 알 수 있다.

흑색 사각형 구역의 지형을 보면, 舊津 일대의 지형이 암벽 지대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문산은 산에 있는 큰 돌[石]이 성문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²⁷⁾ 구진을 지나 위쪽으로 들어가면 門內洞이 나오는데, 石門에서 유래한 이름임을 알 수 있다. 운마산이라는 명칭은 북쪽에 위치한 上雲·中雲·下雲이라는 지명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을 감안하면 ‘석문’이라는 지명은 운마산 일대를 지칭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석문이 운마산 일대를 지칭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석문의 들판’은 운마산 앞쪽에 위치

24) 『新增東國輿地勝覽』 권41, 黃海道 瑞興都護府 山川.

25) 「瑞興」(서흥14호, 1:50,000) 지도는 1895년 임시측량부가 측도하고, 1898년 육지측량부가 製版한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https://www.museum.go.kr/modern-history/map.do>) 참조.

26) 「新幕」(신막14호, 1:50,000) 지도는 육지측량부가 1918년 측도하고 1919년 발행한 것이다. 한국근대사료DB(<https://db.history.go.kr/modern/search/searchResultList.do>)에서 확인 가능하다.

27) 국가지식포털 북한지역정보넷(<http://www.cybernk.net>), 자연지리정보관 지형지물 황해북도 봉산군 수곡리.

한 들판을 의미할 것이다. 당시 당군은 석문의 들판에 진영을 편성하였고, 신라군은 대방의 들판에 진영을 편성해 대치하였다. 운마산은 서흥의 서쪽 경계에 해당하는데, 운마산의 서쪽은 鳳山이다.

신라군이 주둔했던 ‘대방의 들판’에서 대방은 평양 남쪽의 어느 지역을 뜻한다.²⁸⁾ 대방군 郡治의 위치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²⁹⁾ 군치의 위치와 무관하게 대방군의 대략적인 위치는 황해도 일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³⁰⁾ 대방군의 속현은 주로 해안과 연결되는 평야 지대나 재령강을 따라 분포하였다.³¹⁾ 평양에서 남하한 당군은 황주에서 봉산을 거쳐 재령으로 갈 수 있다. 당군의 남하경로 그리고 ‘석문’의 당군과 ‘대방’의 신라군이 전투 직전에 대치하였던 사실을 감안하면, 신라군은 봉산의 어느 들판에 주둔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백수성을 비정하기에 앞서, 과거 황해도 봉산 일대의 지형이 현재와 상당히 달랐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림 3] 제량해와 봉산의 위치



28) 공석구, 2020, 162쪽.

29) 기존에는 봉산 智塔里土城을 대방의 치소로 보는 경향이 강하였는데, 근자에 張撫夷墓를 재검토하여 지탑리토성이 대방의 치소가 되기 어렵다는 견해가 새롭게 제시되어 주목된다(정인성, 2010).

30) 안정준, 2022, 181쪽.

31) 오영찬, 2006, 207~208쪽 ; 정병진, 2020, 22쪽.

[그림 3]의 왼쪽 지도는 조선 후기 「八道分圖」의 일부분이며, 오른쪽 지도는 조선 후기 「朝鮮八道地圖」의 일부분이다.³²⁾ 위쪽에 대동강과 급수문이 있고, 오른쪽에 황주와 봉산이 자리잡고 있다. 황주와 봉산 사이에는 正方山과 洞仙嶺이 있으며, 그 서남쪽으로 재령과 장수산이 위치한다. 재령과 장수산 일대³³⁾가 고구려부흥군의 거점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봉산 서쪽, 재령 북쪽, 안악 동쪽은 거대한 재령평야를 이루고 있는데, 그 사이를 재령강이 남북으로 흘러간다. 하지만 왼쪽의 「팔도분도」에는 재령강과 재령평야가 보이지 않고, 그 대신 넓은 灣이 보인다. 「팔도분도」에는 재령평야 일대를 ‘濟梁海’라고 표기하고 있다.³⁴⁾ 『與猶堂全書』에는 絶瀼은 濟梁이라고도 하는데, 평안도와 황해도 사이에 ‘小海’를 이룬다고 되어있다.³⁵⁾

제랑해를 단순히 西海라고 말하긴 어렵겠지만, 바다와 연결된 內海로서 존재한 것은 분명하다.³⁶⁾ 제랑해가 존재했던 구역이 바로 재령평야 일대이다. 재령평야는 17세기부터 본격적인 개척이 시작되어,³⁷⁾ 일제시기에 이르면 현재와 비슷한 모습을 갖추게 된다. 그 사이 제랑해는 모습을 감추고 재령강 수로와 재령평야가 남게 되었다.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봉산 서쪽으로는 교통로가 거의 발달하지 못하였다. 봉산의 북쪽은 산악지대가 동서로 이어지고, 남쪽은 평야와 구릉이 펼쳐지는데, 그 사이를 서흥강이 동서로 흐르고 있다. 황주에서 재령으로 갈 경우 남서쪽으로 바로 남하하는 것이 아니라, 봉산 위쪽의 동선령을 통해 남하한 다음 재령 방면으로 다시 서진해야 했다. 따라서 동선령 아래에 위치한 봉산은 자연스럽게 북쪽으로 황주, 남서쪽으로 재령, 동쪽으로 서흥을 연결하는 교통의 결절지가 되었다.

Ⅲ. 서흥강과 봉산의 고성

백수성의 위치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백수산·천산과 함께 보이는 ‘橫水’의 위치도 확인해 보아야 한다. 횡수는 어의대로 본다면 가로지르는 강이다. 신라군·고구려부흥군은 당군

3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검색서비스(<https://kyudb.snu.ac.kr/main.do?mid=GZD>).

33) 장수산성은 둘레가 10km에 달하는데, 황해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산성이다. 주변의 평지토성과 함께 신원 도시유적을 방어하는 산성으로, 황해도 일대에서 중심적인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된다(양시은, 2013, 137쪽).

34) ‘제랑’이라는 명칭은 리명에도 흔적이 남아있는데, 1952년 군면리 대폐합에 따라 濟梁里가 신설되었다. 1986년 恩惠里로 개칭되었다가 현재는 폐지되었다(국가지식포털 북한지역정보넷(<http://www.cybernk.net>), 행정구역정보관 황해남도 은천군 은혜리).

35) 『與猶堂全書』 「大東水經」 3, 浪水2, “絶瀼, 亦云濟梁, 渤海一曲陡入如熨斗, 間於平安·黃海二道, 爲小海, 而浪水注入于此.”

36) 이상훈, 2023, 134-135쪽.

37) 재령평야의 본격적인 개척은 17세기 조선 인조대 金自點에 의해 본격화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재령의 나무리벌[餘物坪]이다(홍금수, 2007, 94쪽).

과 서흥·봉산 일대에서 전투를 벌였다. 따라서 횡수는 서흥과 봉산 일대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서흥강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백수성과 백수산은 서흥강 일대에 위치한 지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서흥강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서흥에서 발원하여 봉산을 거쳐 재령강으로 흘러들어간다. 서흥강은 서흥군 舞將山에서 발원하여 은파군 강안리에서 재령강으로 흘러들어가는데, 길이 100.8km로 재령강의 지류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³⁸⁾

[그림 4] 천곡과 용천의 위치



[그림 4]의 왼쪽 지도는 1895년 일본 임시측도부가 측도한 「1:50,000」 지도의 일부분이며,³⁹⁾ 오른쪽 지도는 조선 후기 「東興圖」의 일부분이다.⁴⁰⁾ 서흥군 남한리에 위치한 武靈山은 해발 524m로 조선시대 임궽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 이곳에서 춤을 추었다고 하여 무장산이라고도 한다.⁴¹⁾ 이와 관련하여 軍糧洞이나 新將洞이라는 지명이 남아있다.

무령산 오른쪽에는 도포곡산, 아래쪽에는 소록산과 덕대산이 위치한다. 이들 4개 산의 가운데에 ‘泉谷’이 위치한다.⁴²⁾ 천곡은 샘이 솟는 골짜기라는 의미이다. 서흥강은 무장산(무령산) 천곡 일대에서 발원한다고 보아야 무방하다. 천곡 아래쪽에는 黃龍山이 위치하는데, 이곳에도 서흥강의 또다른 지류가 발원한다. 황룡산의 지류와 무장산 천곡의 지류가 합쳐져 龍

38) 국가지식포털 북한지역정보넷(<http://www.cybernk.net>), 자연지리정보관 지형지물 황해북도.
 39) 「葱秀驛」(서흥10호, 1:50,000) 지도는 1895년 임시측도부가 측도하고, 1898년 육지측량부가 製版한 것이다.
 40)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검색서비스(<https://kyudb.snu.ac.kr/main.do?mid=GZD>).
 41) 국가지식포털 북한지역정보넷(<http://www.cybernk.net>), 자연지리정보관 지형지물 황해북도 서흥군 남한리.
 42) 천곡이 위치한 서흥 일대는 고구려 시기 五谷郡이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다(『삼국사기』 권35, 잡지4 지리2, 신라 오관군, “五開郡, 本高句麗五谷郡, 景德王改名”).

泉을 이룬다. 따라서 황룡산의 ‘龍’ 과 무장산 천곡의 ‘泉’ 을 합쳐 용천이라 불렀음을 짐작할 수 있다.

D. 龍泉. 府의 남쪽 22리에 있다. 산기슭에서 물이 솟아 나와 시내를 이루었는데, 이름을 용천이라 한다.⁴³⁾

『신증동국여지승람』 서흥대도호부의 산천조를 보면, 서흥의 하천으로 용천만 언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용천에서 이름을 딴 용천역도 존재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까지는 천곡에서 발원하여 서흥을 지나 봉산으로 흐르는 강을 용천이라고 불렀음을 알 수 있다. 서흥은 고구려 五谷郡, 신라 五關郡, 고려 洞州로 불리다가 조선시대에 서흥군으로 되었다. 따라서 ‘서흥강’ 이라는 명칭은 근대 이후에 붙여진 이름이라 할 수 있다.

[그림 5] 서흥강 일대의 지형



현재 서흥강은 무장산 천곡 일대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흐르는데, 대표적인 지류로는 흥수천·검수천·천수천 등이 있다. 과거에 서흥강 자체는 용천이라고 불렀는데, 그 지류는 興水, 劍水, 泉水라고 불렀을 것이다.

이러한 서흥강은 특이하게도 강을 따라 샘이나 우물을 지칭하는 지명들이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강을 따라 泉洞·武井洞·碑井洞·武井里·文井面·九井洞 등의 지명이 확인된다.⁴⁴⁾

43)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1, 黃海道 瑞興都護府 山川.

44) 일본 임시측도부가 1895년 측도한 「1:50,000」 지도,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가 1918년 측도한 「1:50,000」 지도 등 근대 지도들에서 확인 가능하다([그림 2] 관련 지도).

서흥강 일대에 샘이나 우물이 특히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서흥강의 발원지가 천곡이라는 점, 서흥강의 조선시대 명칭이 용천이라는 점, 서흥강의 현재 지류 명칭이 천수라는 점, 서흥강 일대에 샘이나 우물이 집중 분포하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서흥강의 과거 명칭은 천수 혹은 천강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료들에 보이는 白水城·白水山·泉山이라는 명칭은 서흥강의 과거 명칭인 泉水·泉江 즉 ‘白水’에서 유래했다고 할 수 있다.⁴⁵⁾ 횡수라는 명칭은 서흥강이 서쪽으로 길게 가로지르며 흐르는 강이라는 뜻에서 이름하였을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백수성 전투에 이어 보이는 석문은 봉산과 서흥의 경계인 운마산 아래이다. ② 당군의 남하 목표는 고구려부흥군의 근거지인 재령 일대로 예상된다. ③ 백수성·백수산·천산 등의 용어는 동일한 지역을 의미하며 서흥강에서 유래한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백수성은 봉산 지역일 가능성이 큰데, 봉산 중에서도 서흥강에 인접한 성곽이었을 것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봉산의 古城으로 鶴鷓城과 古唐城이 기록되어 있다.⁴⁶⁾ 먼저 휴류성은 휴류산에 위치한 고구려의 성이다. 휴류산성은 둘레 약 1.5km의 石城이었는데, 현재 남북 640m 정도만 잔존한 상태이다. 북한학계에서는 이 성을 평양의 남쪽 관문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⁴⁷⁾ 『삼국사기』에 ‘휴류성’은 고구려 한산주의 성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반면,⁴⁸⁾ ‘백수성’은 三國有名未詳地分으로 분류되어 있다.⁴⁹⁾ 따라서 두 성은 별개의 성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고당성은 아래와 같은 기록이 남아 있다.

E-① 古唐城. 군의 남쪽 22리에 있다. 흙으로 쌓았는데, 둘레가 4리이며 높이는 24척이다. ② 어느 시대에 쌓았는지 알 수 없다. 俗傳에 당 태종이 동쪽을 정벌하던 때에 하룻밤을 묵었던 곳이라 하여, 예부터 唐城·太城이라 일컫었다. 역사로써 생각해 보면, 태종은 안시성에 이르렀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게 된다.⁵⁰⁾

45) 白水와 관련하여 종종 언급되던 배천은 고려시대 배주였으며, 조선시대에 배천이었다. 배천을 대표하는 한자는 ‘泉’이 아니라 ‘白’이다. 일제시기 행정구역 통폐합시 배천군은 延安郡과 합쳐지면서 延白郡이 되었다.

46)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1, 黃海道 鳳山郡 古跡, “鶴鷓城. 在郡北二里. 石築. 周八千六百五十六尺, 高十五尺, 內有一井, 又有軍倉. 新羅景德王二十一年築. 今半頽圮. 古唐城. 在郡西十二里, 土築. 周四里, 高二十四尺.”

47) 신광철, 2011, 202쪽.

48) 『삼국사기』 권37, 잡지6 지리4, 고구려 한산주의 주·군·현·성, “鶴鷓城. 一云租波衣, 一云鶴巖郡.”

49) 『삼국사기』 권37, 잡지6 삼국유명미상지분, “白水城.”

50) 『鳳山郡輿地誌』 關防, “古唐城. 在郡南二十二里. 土築. 周回四里, 高二十四尺. 不知何代所築. 俗傳, 唐太宗東征時一夜宿處, 古稱唐城太城. 以史考之, 太宗至安市城而還無所證也.”

『鳳山郡輿地誌』 관방에는 고당성이 봉산군 남쪽 22리에 위치하며 토성으로 둘레가 4리라고 되어 있다. E-①의 내용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기록되어 있다.⁵¹⁾ 그런데 ②의 내용은 『봉산군여지지』에만 수록되어 있다. 속전에 당 태종이 하룻밤 묵었던 곳이라는 뜻에서 唐城이라 불렀다고 전한다. 그런데 당 태종은 645년 고구려·당 전쟁 당시 요동의 안시성 전투에 참가했으므로 믿을 수 없다고 하였다.

물론 당 태종이 황해도 고당성에 주둔했던 사실은 없다. 661년 당 고종 시기 당군은 대동강 수로를 거슬러 올라가 평양성을 공격한 적이 있는데,⁵²⁾ 황해도 내륙에 상륙하지는 않았다. 당군이 황해도 내륙을 육로 침공한 때는 672년 백수성 전투가 벌어진 시기뿐이다. 따라서 당시 당군이 고당성 일대에 주둔했던 사실이 후대로 전승되면서 와전되었을지도 모른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침공한 대표적 인물인 당 태종이 부각되어 전승되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당성은 백수성의 유력한 후보지가 될 수 있다.

F. 文武井. 군의 남쪽 15리에 있다. 어느 시대에 처음 뚫었는지 알 수 없으나, 예부터 무너져 막혔다. 속전(俗傳)에 이 우물이 막히지 않을 때 문무 인제가 배출되어 人傑의 고향으로 곧잘 일컬어졌다. 唐人이 그것을 꺼리어, 메워 막은 후 인제가 성하지 못하였고 100여 년간 문무 인제가 종종 끊어지게 되었다.⁵³⁾

『輿地圖書』 봉산군 고적에는 문무정에 관한 전승이 남아있다. 문무정은 봉산군 고읍동에 위치했던 우물로 唐人이 메워버렸다고 전한다. 마을의 대표적인 우물을 외지인이나 개인이 함부로 막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외침과 같은 전란 시기에 적대적 세력이 우물을 폐쇄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고당성은 봉산군의 남쪽 22리, 문무정은 남쪽 15리에 위치한다. 고당성과 문무정의 거리는 7리에 불과하다. 고당성에 唐軍 전승이 남아있는 것과 문무정에 唐人 전승이 남아있는 것은 서로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51)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고당성이 봉산군 서쪽 12리에 위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원래 봉산읍은 서흥강 가까이 위치하였는데, 이후 북쪽의 현재 봉산읍 자리로 옮겨가고 원래 봉산읍은 古邑이 되었다.

52) 『삼국사기』 권22, 고구려본기10, 보장왕 20년, “秋八月, 蘇定方破我軍於浪江, 棄馬邑山, 遂圍平壤城.”

53) 『輿地圖書』 黃海道 鳳山郡 古跡, “文武井. 在郡南十五里. 不知何代始鑿, 而古來廢塞. 俗傳此井不塞之時, 文武輩出, 素稱人傑之鄉. 唐人忌之, 填塞之後, 人才不盛, 百餘年間, 文武幾斷.”

[그림 6] 고당성 일대의 지형



[그림 6]의 왼쪽 지도는 조선 후기 「朝鮮地圖」 봉산의 일부분이며,⁵⁴⁾ 오른쪽 지도는 1918년 육지측량부가 측도한 「1:50,000」 지도의 일부분이다.⁵⁵⁾ 왼쪽 지도를 보면 고당성은 북쪽 황주, 서남쪽 재령, 동쪽 서흥을 잇는 교통 결절지라고 할 수 있다. 고당성은 서흥강의河中島에 위치하고 있기에 방어에도 유리한 지형이다.

오른쪽 지도를 보면 智塔里와 鶴鷗城趾가 표시되어 있다. 지탈리토성은 古唐城 혹은 唐土城이라 불리는데, 오래 전에 파괴되어 완전한 모습을 볼 수는 없다. 고대의 아랫토성과 후대의 윗토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윗토성은 동벽 약 150m 북벽 약 180m가 남아 있다.⁵⁶⁾ 휴류성은 휴류산에 위치하는데, 휴류산은 鹿臥山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서흥강 아래로는 遮日峯이 위치하고 있다.

고당성 일대의 지형을 보면 동서로 서흥강이 흐르고, 서흥강 이남은 차일봉 산록으로 인해 험지가 이어진다. 서흥강 이북은 낮은 구릉지와 평야가 이어지는데, 이 일대에서 가장 높은 곳인 휴류산(156m)에 휴류산성이 자리잡고 있다. 차일봉 북쪽에 위치한 토성리에도 토성이 남아있다. 이 일대를 방어하려면 황주로 통하는 휴류산, 재령으로 통하는 고당성, 서흥으로 통하는 토성리를 통제해야 한다. 이 가운데 고당성은 평양에서 남하한 당군이 황주에서 동선령을 거쳐 재령으로 가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5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검색서비스(<https://kyudb.snu.ac.kr/main.do?mid=GZD>).
 55) 「銀波里」(해주2호, 1:50,000) 지도는 육지측량부가 1918년 측도하고 1919년 발행한 것이다. 한국근대사료DB(<https://db.history.go.kr/modern/search/searchResultList.do>).
 56) 국가지식포털 북한지역정보넷(<http://www.cybernk.net>), 유물유적정보관 유적 황해북도 봉산군 지탈리.

IV. 당군의 남하와 석문 전투

평양에 주둔하던 당군은 672년 8월에 남하를 시작하였다. 대동강 북안에 위치한 韓始城과 馬厓城을 차례로 점령하고 대동강을 건넜다.

한시성은 현재 평양 西山에 위치한 赤頭山城으로 비정되는데, 고구려 시기에 축조되었으며 둘레는 2,170m에 달한다.⁵⁷⁾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평양부의 성곽으로 대성산성·장안성·적두산성 3개만 기록되어 있다.⁵⁸⁾ 대성산성은 평양성 동북쪽에 위치하고, 장안성은 평양성이며, 적두산성은 평양성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당군은 평양성 서남쪽의 대동강과 보통강이 합수하는 지점에 위치한 한시성(적두산성)을 먼저 함락한 후, 대동강 북안을 따라 서남쪽으로 남하하였다.

마음성은 현재 남포 천리마구역에 위치한 棲鶴山 일대로 비정되는데, 바로 아래에 保山이 위치하고 있다. 대동강 북안에 서학산이, 대동강 남안에 鼎耳山이 자리잡고 있어서 대동강 수로 폭이 500~600m로 상당히 좁다. 그 대신 수심이 깊어 포구 발달에 유리하다.⁵⁹⁾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朝鮮古蹟調查報告』에는 ‘보산과 정이산이 호응하면 대동강을 통제할 수 있는 둘도 없는 요해처’ 라고 기록되어 있다.⁶⁰⁾ 당군은 대동강 수로의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서학산 일대를 장악하고, 여기에서 대동강을 건너 황주 방향으로 남하하였다.

[표 2] 황해도 주요 교통로 변화

시 기	내 용	교통로	전 거
993년(성종 12)	강화 논의	자비령	『고려사절요』 권2, 성종 12년 10월
997년(성종 16)	변경 방어	자비령	『고려사절요』 권2, 성종 16년 10월
1009년(목종 12)	강조 방어	자비령	『고려사절요』 권2, 목종 12년 1월
1135년(인종 13)	묘청의 난	자비령	『고려사절요』 권10, 인종 13년 1월
1174년(명종 4)	조위총의 난	자비령	『고려사절요』 권12, 명종 4년 9월
1270년(원종 11)	동녕부 설치	자비령	『고려사』 권26, 원종 11년 2월
1361년(공민왕 10)	흥건적 침입	자비령	『고려사절요』 권27, 공민왕 10년 10월
1432년(세종 14)	사신로 논의	자비령, 동선령	『세종실록』 권56, 세종 14년 4월 13일
1450년(세종 32)	관방 논의	자비령, 극성문	『세종실록』 권127, 세종 32년 1월 15일
1451년(문종 1)	관방 논의	동선령, 극성문	『문종실록』 권7, 문종 1년 5월 5일
1456년(세조 2)	사신로 논의	자비령, 동선령	『세조실록』 권5, 세조 2년 8월 14일
1465년(세조 11)	관방 논의	동선령, 극성문	『세조실록』 권35, 세조 11년 4월 30일
1592년(선조 25)	선조 몽진	동선령	『선조실록』 권26, 선조 25년 5월 6일
1593년(선조 26)	일본군 퇴각	동선령	『선조실록』 권34, 선조 26년 1월 11일
1636년(인조 14)	청군 침입	동선령, 극성문	『정조실록』 권21, 정조 10년 1월 22일
1680년(숙종 6)	관방 논의	동선령, 극성문	『숙종실록』 권9, 숙종 6년 7월 2일

57) 이상훈, 2022, 246~247쪽.

58) 『신증동국여지승람』 권51, 平安道 平壤府 古跡.

59) 이상훈, 2017, 299~301쪽.

60) 朝鮮總督府, 1919, 756~759쪽.

1733년(영조 9)	관방 논의	동선령, 극성문	『영조실록』 권34, 영조 9년 5월 27일
1786년(정조 10)	관방 논의	동선령, 극성문	『정조실록』 권21, 정조 10년 1월 22일

예부터 황해도에서 가장 중요한 고개는 慈悲嶺이었는데,⁶¹⁾ 岫嶺이라고도 한다.⁶²⁾ 거란의 침입, 강조의 정변, 묘청의 난, 조위충의 난, 동녕부의 설치, 흥건적의 침입 등 여러 사안에 있어 모두 자비령을 기준으로 논의되었다. 10~14세기 고려시대 황해도의 주요 관방은 자비령이었다고 할 수 있다.⁶³⁾ 신라가 935년에 멸망한 것을 감안하면, 통일신라부터 고려시대 내내 자비령이 황해도의 주요 남북 교통로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조선이 건국된 이후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사신로와 관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비령과 더불어 洞仙嶺⁶⁴⁾과 棘城門⁶⁵⁾이 언급되었다. 15세기 조선시대에는 자비령, 동선령, 극성문이 혼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16세기에 이르면 자비령은 논의에서 사라지는 대신에, 동선령이 부각되었다. 특히 임진왜란 당시 선조는 동선령을 통해 몽진하였고, 평양성에서 철수한 일본군도 동선령을 통해 남하하였다.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자비령 대신 동선령을 통해 대규모 인원들이 왕래했음을 알 수 있다.

61) 자비령은 높이 489m의 고개로 황해도 황주군·봉산군·서흥군 사이에 위치한다.

62) 『세종실록』 권152, 지리지 황해도 황주목 서흥도호부.

63) 자비령은 고려시대 이후 조선시대까지 대표적인 간선로였는데, 대동강·재령강·예성강의 평야지대를 연결시켜주어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중요도가 높았다(서영일, 2006, 45쪽 ; 박중서, 2014, 62쪽).

64) 동선령은 황해도 황주군의 서남쪽과 봉산군의 서북쪽 사이에 위치한다. 동선령은 조선시대 평안도에서 황해도로 들어오는 서북대로의 첫 요해지로, 방어를 위해 산산진과 정방산성이 설치되었다(고승희, 2006, 407쪽).

65) 棘城은 황해도 황주군 正方山 서쪽에 위치한 성으로 고려시대에 축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고려말에 흥건적을 막기 위해 정방산 정상에서 해안의 朴排浦까지 성을 쌓고, 성 주변에 가시나무를 심어 적의 침입을 제한하였다고 하여 棘城이라 불린다.

[그림 7] 극성·정방산성·동선령의 위치



[그림 7]의 왼쪽 지도는 「廣興圖」 봉산군의 일부분이며,⁶⁶⁾ 오른쪽 지도는 「東國輿圖」海西道の 일부분이다.⁶⁷⁾ 봉산 서북쪽과 황주 서남쪽 경계에 正方山이 있으며, 그곳에 정방산성이 위치한다. 정방산을 기준으로 왼쪽에 극성(문)이 있고 그 아래 蒜山鎭이 위치한다. 정방산 오른쪽에 舍人巖과 동선령(동선관)이 위치한다. 오른쪽 「동국여도」를 보면 봉산 바로 위쪽에 舊洞仙嶺이 있는데, 동선령 자체가 서쪽으로 이동했던 정황을 보여주고 있다.

16세기 이후 동선령과 극성을 중시하는 경향은 꾸준히 유지되어 조선 후기까지 이어진다. 원래 험난했던 자비령은 조선 중기를 지나 후기로 가면서 사람의 통행이 점점 줄어들며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⁶⁸⁾ 자비령은 고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주요 교통로였지만,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점차 서쪽에 위치한 동선령과 극성문이 이용되면서 그 중요성이 감소하였던 것이다.

정리하면 조선시대 이전 고려시대와 통일신라시대에는 황해도의 주요 교통로는 자비령이었다. 보다 서쪽에 위치한 동선령과 극성문은 남북 통행로로 크게 개발되지 않아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

재령로는 서울-과주-개성-해주-신원-재령 등으로 연결되는 길인데,⁶⁹⁾ 재령에서는 재령강 수로를 따라 북상한 후 대동강 수로를 이용하여 평양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⁷⁰⁾ 나당전쟁이 발생했던 7세기에는 재령평야가 아니라 제랑해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재령 일대에서 수로를

66)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검색서비스(<https://kyudb.snu.ac.kr/main.do?mid=GZD>).

67)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검색서비스(<https://kyudb.snu.ac.kr/main.do?mid=GZD>).

68) 1678년(숙종 4) 權修는 숙종에게 황해도의 관방을 논하면서 현재 자비령은 초목이 우거지고 험난하여 사람과 말이 통행하기 어렵다고 아뢰었다(『숙종실록』 권7, 숙종 4년 12월 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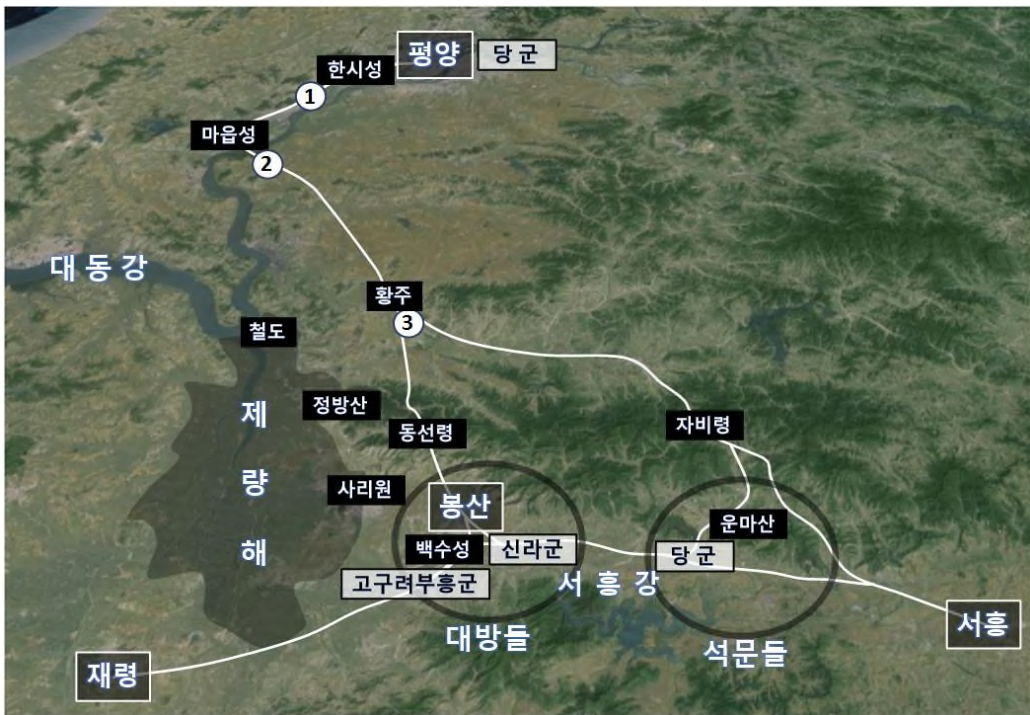
69) 서영일, 2006, 45쪽.

70) 양시은, 2013, 137쪽 ; 여호규, 2020, 266쪽.

이용하는 것이 보다 수월하였다. 당시 재령-평양 간 일반적인 교통로는 수로가 더 활성화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황주와 봉산을 잇는 육로 교통로는 존재하였을 것이다. 다만 조선시대 만큼 그리 활성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평양에서 재령 일대로 이동하는 경우 주로 수로를 이용하였을 것이며, 개성 일대로 이동하는 경우 육로인 자비령을 이용하였을 것이다. 당군의 경우 적지를 육로로 남하해 왔으므로, 동선령 일대를 경유하여 봉산으로 진입하였을 것이다.

[그림 8] 당군의 남하와 봉산 일대



당군은 한시성과 마음성을 지나 황주로 남하하였다. 이후 당군은 대동강과 예성강 사이 황해도를 장악하기 위해 동선령과 자비령을 모두 통제하려 했을 가능성이 크다. 현 상황에서 어느 쪽으로 주력부대가 이동하였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재령 일대의 고구려부흥군을 목표로 하였다면 동선령을 중시하였을 것이고, 정규군인 신라군을 의식하였다면 자비령을 장악하려 하였을 것이다.

백수성 전투는 남하한 당군과 신라군·고구려부흥군이 연합해 벌인 전투이다. 신라군과 고구려부흥군이 백수성 일대에 먼저 집결해 있었고, 당군이 백수성 500보 지점까지 접근해 왔다. 당군이 바로 공격하지 않고 500보 지점에 진영을 편성한 것을 감안하면,⁷¹⁾ 백수성 앞에

71) 612년 隋軍은 평양성 공격에 앞서 북으로 30리 떨어진 곳에 진영을 편성하였으며(『삼국사

자연장애물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백수성으로 추정되는 고당성은 하중도에 위치했기 때문에, 당군은 서흥강을 도하하기 위해 잠시 진군을 멈추었던 것으로 여겨진다.⁷²⁾

당군이 주춤하는 사이 신라군과 고구려부흥군이 협공하여 당군을 격파하였다. 패배한 당군은 석문쪽으로 물러났고, 신라군은 당군을 추격하였다. 이후 석문 전투에 등장하는 대상은 신라군과 당군이다. 고구려부흥군은 백수성을 고수하고, 신라군만 추격에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백수성 전투를 되돌아 보면, 처음부터 고구려부흥군이 백수성의 방어를 공고히 하고 대기한 상태에서 신라군은 백수성 인근 외곽에 주둔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당군이 백수성 앞에서 주춤하는 사이 외곽의 신라군과 백수성의 고구려부흥군이 동시에 공격에 나서 당군을 패배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신라군은 그대로 당군의 추격에 나서고, 고구려부흥군은 백수성 방어를 지속했을 것이다.

당군이 석문쪽으로 이동한 것은 자비령을 통해 남하한 일부 당군과 합군하기 위함이었다고 여겨진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방의 들판’에 주둔한 신라군과 ‘석문의 들판’에 주둔한 당군이라는 구도가 성립한다. 석문 일대에 방어를 강화한 당군과 추격에 나선 신라군과의 대결이 바로 석문 전투였던 것이다. 그리고 12월까지 백수성·백수산 일대에서 전투가 발생한 것은 전투력을 보존한 고구려부흥군이 이 일대에서 당군과 지속적으로 전투를 벌였기 때문이라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V. 맺음말

672년에 발생한 석문 전투는 나당전쟁 전반부의 최대 변곡점이었다. 신라군은 평양에서 남하한 당군과 평지전을 벌여 크게 패배하였고, 결국 전국에 축성하며 방어적으로 전략을 수정하였다. 이러한 석문 전투 발생 직전에 신라군과 고구려부흥군이 연합하여 당군과 싸운 전투가 바로 백수성 전투이다. 하지만 석문과 달리 백수성은 그 위치가 명확하지 않다. 백수성의 위치는 크게 재령강 유역과 예성강 유역으로 보는 학설이 제시되어 있다. 백수성 전투에 이어 등장하는 석문은 석문사가 위치한 서흥의 운마산으로 비정된다. 관련 자료들을 확인한 결과, 운마산은 큰 돌[石]이 성문처럼 생겼기에 성문산으로 불리었으며, 인근에 문내동이라는 지명도 남아 있다. 이러한 점들에서 볼 때 석문은 운마산 일대가 확실한 것 같다.

서흥강의 발원지가 천곡이라는 점, 서흥강의 조선시대 명칭이 용천이라는 점, 서흥강 일대

기』 권20, 고구려본기8, 영양왕 23년), 668년 당군은 평양성 공격에 앞서 북으로 20리 떨어진 영류산에 진영을 편성한 적이 있다(『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문무왕 8년).

72) 당시 서흥강의 폭과 수심은 알 수 없지만, 고당성이 서흥강의 하류에 위치하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도보로 건너기는 어려웠음에 분명하다. 도하작전은 특수장비와 병력이 소요되고 지휘통제가 곤란해지며 방책이 제한되는 특성이 가진다(김광석, 1998, 194~195쪽).

에 샘이나 우물이 집중 분포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서흥강의 원래 이름은 천수 혹은 천강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료들에 보이는 백수성·백수산·천산 등은 모두 서흥강 일대를 이르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석문 전투가 발생한 곳이 운마산 아래쪽이라는 점, 당군의 남하 목표가 재령 일대로 예상되는 점, 백수성·백수산·천산 등의 용어가 서흥강에서 유래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백수성은 봉산 지역에 위치했을 가능성이 크다. 봉산의 古城으로 휴류성과 고당성이 확인되는데, 그 가운데 서흥강의 하중도에 위치한 고당성이 백수성으로 추정된다. 고당성과 인근에는 당군 관련 전승도 남아 있어 이를 뒷받침한다.

평양에서 황주까지 남하한 당군은 동선령과 자비령을 통해 남하하였다. 동선령을 경유해 남하한 당군과 신라군·고구려부흥군이 백수성(고당성) 전투를 벌였다. 당군이 패배하여 달아나자 신라군이 추격하여 석문에서 다시 전투가 벌어졌다. 석문에는 자비령을 경유한 당군 일부가 미리 자리잡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신라군은 운마산 아래 석문의 들판에서 당군에게 크게 패배하고 말았던 것이다.

투고일: 2024.10.29, 심사개시일: 2024.11.29, 게재확정일: 2024.12.09.

【참고문헌】

『삼국사기』 『고려사절요』 『고려사』 『세종실록』 『문종실록』 『세조실록』 『선조실록』 『숙종실록』 『영조실록』 『정조실록』 『舊唐書』 『新唐書』 『資治通鑑』 『冊府元龜』 『新增東國輿地勝覽』 『與猶堂全書』 『鳳山郡輿地誌』 『輿地圖書』 『廣輿圖』 『海西地圖』 『東輿圖』 『八道分圖』 『朝鮮地圖』 『朝鮮八道地圖』 『東國輿圖』

- 고승희, 2006, 「조선후기 황해도 내지 방어체계」, 『한국문화』38.
- 김광석, 1998, 『용병술어연구』, 병학사.
- 김기웅, 1966, 「배천산성 답사보고」, 『고고민속』1966-1.
- 김병희, 2021, 「신라-당 전쟁사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창혁, 2019, 「나당전쟁 시기 매소성 전투와 신라의 북방전선」, 『한국고대사연구』95.
- 권창혁, 2023, 「최근 나당전쟁사 연구의 주요 쟁점」, 『북악사론』18.
- 노태돈, 2009,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 민덕식, 1989, 「나.당전쟁에 관한 고찰」, 『사학연구』40.
- 박종서, 2014, 「고구려 고국원왕-광개토태왕대 남진로 검토」, 『사학지』49.
- 서영교, 2002, 「나당전쟁기 석문 전투」, 『동국사학』38.
- 서영교, 2006, 『나당전쟁사 연구』, 아세아문화사.
- 서영일, 2006, 「고구려의 백제 공격로 고찰」, 『사학지』38.
- 서인한, 1999, 『나당전쟁사』, 국방군사연구소.
- 신광철, 2011, 「황해도 일대의 고구려 관방체계와 남부전선의 변화」, 『선사와 고대』35.
- 안병찬, 1990, 「장수산성 일대의 고구려 유적 유물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1990-2.
- 안정준, 2022, 「대방군의 설치 의도와 장기 존속의 배경」, 『고조선단군학』48.
- 양시은, 2013, 「평양도읍기 고구려의 성곽방어체계」, 『고고학』12-3.
- 여호규, 2020, 「고구려의 한반도 중부지역 지배와 한성 별도의 건설」, 『한국고대사연구』99.
- 오영찬, 2006, 『낙랑군 연구』, 사계절.
- 이기동, 1987, 「역사편」, 『한국학기초자료선집 -고대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이병도, 1977, 『국역 삼국사기』, 을유문화사.
- 이상훈, 2012, 『나당전쟁 연구』, 주류성.
- 이상훈, 2016, 「나당전쟁기 신라의 대규모 축성과 그 의미」, 『한국고대사탐구』23.
- 이상훈, 2017, 「삼국통일기 고구려 마음산의 위치와 군사적 위상」, 『군사』104.
- 이상훈, 2022, 「나당전쟁기 고구려 한시성의 위치에 대하여」, 『동아시아고대학』67.
- 이상훈, 2023, 「고구려 부흥운동기 사야도의 위치에 대하여」, 『북악사론』18.
- 이정빈, 2009, 「고연무의 고구려 부흥군과 부흥운동의 전개」, 『역사와 현실』72.
- 전덕재, 2016, 「신라의 북진과 서북 경계의 변화」, 『한국사연구』173.

- 정병진, 2020, 「고구려의 대방 지역 진출과 영역화 과정」, 『고구려발해연구』68.
- 정인성, 2010, 「대방태수 장무이묘의 재검토」, 『한국상고사학보』69.
- 朝鮮總督府, 1919, 『朝鮮古蹟調査報告(大正五年)』(1980, 민족문화사).
- 최재도, 2015, 「한성의 고구려국 재검토」, 『동북아역사논총』47.
- 홍금수, 2007, 「재령 여물평(나무리벌)의 역사지리적 재조명」, 『문화역사지리』19-3.
- 池内宏, 1930, 「高句麗滅亡後の遺民の叛亂及び唐と新羅との關係」, 『滿鮮地理歴史研究報告』12.
- 국가지식포털 북한지역정보넷(<http://www.cybernk.net>).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검색서비스(<https://kyudb.snu.ac.kr/main.do?mid=GZD>).
- 한국근대사료DB(<https://db.history.go.kr/modern/search/searchResultList.do>).

【Abstract】

A Study on the Location of Baeksu-seong in Goguryeo during the Silla-Tang War

Yi, Sang-hun
(Korea Military Academy)

The Seokmun(石門) battle took place in 672, the biggest change in the early days of the Silla-Tang war(羅唐戰爭). The Seokmun battle just before the occurrence of the Baeksu-seong(白水城) battle took place. It was a battle that Silla(新羅) army and Goguryeo(高句麗) revival army united and fought against the Tang(唐). However, unlike the Seokmun, the location of the Baeksu-seong is not clear. A theory was suggested that the location of the Baeksu-seong is the basin of River Jaeryeong(載寧江) and the basin of River Yeseong(禮成江). The origin of River Seoheung(瑞興江) is Cheon-gok(泉谷), and the name of the Joseon Dynasty of River Seoheung is Yong-cheon(龍泉). And springs and wells are concentrated around River Seoheung. Given these points, the original name of River Seoheung would have been Cheon-gang(泉江). All of the Baeksu-seong(白水城), Baeksu-san(白山水), Cheon-san(泉山), etc. seen in the historical data refer to River Seoheung.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Baeksu-seong was located in the Bongsan(鳳山) area of the Hwanghae-do(黃海道). The old fortresses in the Bongsan area include Hyuryu-seong(鶻鷓城) and Godang-seong(古唐城), of which Godang-seong, is estimated to be the Baeksu-seong.

Keywords : Silla-Tang War, Baeksu-seong, Seokmun, Silla, Goguryeo